

“환경산업 육성 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청 상형실에서 개최된 제1차 경기도 환경산업 정책포럼에서 포럼위원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도 환경산업의 비전과 주요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면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기철 산업육성실장은 “그동안 환경산업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공동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경기도-환경산업기술원 간 환경산업 육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환경산업창업대학원 김정인 교수는 경기도 유망 환경산업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녹색교통 및 에코자동차 산업, 그린빌딩 및 녹색가구 산업, 작업환경안전 관련 산업, 기상정보산업 등 5가지로 전망하고 미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추진 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선 환경산업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도내 환경산업 업체들의 지역적 분포, 분야별 특성, 업종 유형화,

기술수준, 경쟁력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환경산업의 특성 상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포럼은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을 통한 경기도 환경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포럼으로 환경기업, 유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환경산업 전문가 20여명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통해 경기도 환경산업 비전과 전략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위원으로 참석한 유정인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환경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통상촉진단 파견, 환경협력 MOU 체결, 우수환경기업 지정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환경산업 정책포럼을 통해 환경산업 육성 사업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경기도 환경산업 비전과 육성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㉔